

■ 한나라당 대선 경선 인천 유세... '필승 VS 필패' 격돌

이명박 “본선 ‘한 방’은 결국 ‘헛방’” 박근혜 “깨끗해야 정권 되찾는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홍준표 의원은 30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제4차 합동연설회를 갖고 본선 경쟁력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박 전 대표는 '이명박 필패론'을 다시 거론하며 흡 흡이 안전한 자신이 대선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본선 경쟁력이 높은 자신만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맞섰다.

이 전 시장은 “급년 초부터 한방에 간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면서 “그러나 알고 보니 한 방이 아니라 헛방”이라고 ‘이명박 필패론’을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에 왜 관여하게 됐느냐”고 반문하면서 “경선에서 만만찮, 약한 후보를 뽑아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모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증청문회를 통해 진실한 이야기를 했다.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면서 “민간 기업에서 제가 남의 이름으로 (땅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동산 위장소유의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박근혜의 손은 깨끗한 손”이라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부정부패와 손을 잡은 적이 없다. 깨끗한 손만이 정권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면서 “이 정권이 어떤 공약을 해와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100% 필승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박 필승론-이 필패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을 겨냥, “자식 교육에 담당하지 못하고 어찌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느냐. 부동산 문제에 뗏목하지 못하고 어



한나라당 이명박(왼쪽부터), 원희룡, 박근혜, 홍준표 후보가 30일 인천 중구 도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행사를 마친 뒤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떻게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고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이 밖에 원 의원은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돌풍을 언급하면서 “한나라당도 젊고 역동적인 원희룡과 함께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저를 대표 주자로 내세우면 한나라당을 확 갈아엎고 대한민국 정치를 확 갈아엎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제가 나가면 천하무적이다. 왜 불안하게, 서로 헐뜯는 후보들 뒤에 줄을 서 있느냐”면서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5년 후 빈 손으로 나오는 그런 청빈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

했다.

한편, 이날 연설회에서는 연단에 가까운 자리에 섞여있던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연출했고, 상대 측 후보가 연설할 때는 종종 야유가 들리기도 했다. 또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연설순서가 끝난 뒤 일부 지지자들은 행사장을 빠져나갔으며, 이에 마지막 연설자였던 홍 의원의 “마지막에 (연설을) 하다 보니 3만원, 5만원 받은 분들은 다 가버린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박 전 대표 측

일부 지지자들은 연설회 직후 행사장을 빠져나오던 강재섭 대표에게 물통을 던지며 “왜 이 전 시장 지지자들만 입장시키느냐”며 항의했고, 일부 술에 취한 지지자들은 강 대표의 차를 막고 이재오 최고위원에게 “빨갱이”라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은 또 이 전 시장이 탄 유세 버스에 응원낙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문제삼으며 행사 전 주차장 진입을 막은 데 이어 행사 후에는 버스를 ‘역류’, 결국 이 전 시장이 승합차를 타고 행사장을 떠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위안부 결의안 오늘 표결

美 하원 의원 168명 공동 발의...통과 가능성 높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30일 오후 6시 30분(한국시각 31일 오전 7시 30분) 미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미 의회 소식통들은 지난달 26일 하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 30일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라고 29일 전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클 혼다 의원은 앞서 결의안이 30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 의회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상정이 선거 후인 이날까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처음이다.

일본계 3세인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하원 전체 의원 435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6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데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 왜곡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높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6일 위안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처리했다.

미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 주장의 부당성을 제3국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이 공식 확인하는 점에서 큰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연합뉴스

日 “아베 퇴진·중의원 해산” 대치

일본의 29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데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퇴진과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이를 일축하며 대립했다.

특히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것을 계기로 참의원 의정직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번 선거를 “아베 총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으로 규정하고 총리직 사퇴 등 대외공세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신임을 묻는 선거였다. 국민은 아베 정권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아베 총리의 조기 퇴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승세를 정권교체로 이어가기 위해 아베 총리에 대해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도 요구하고 있다.

공산당과 사민당 등 다른 야당도 “선거 결과를 경계하 받아 들고 아베 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대외 공세를 가세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일신할 것은 일신하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적당한 때에 개각과 당 지도부 인사를 하겠다”고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또 민주당측의 중의원 해산-총선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중의원은 임기가 2년 남았다. 실적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는 해야 할 때에 하는 것이 신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기 해산도 거부했다. /도쿄=연합뉴스

아시아 폭우·홍수 200여명 사망·실종

아시아 곳곳에 쏟아진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로 20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으며 100여만명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술라웨시 섬의 모로발리와 방기아 지방에 지난 22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한때 두 지방이 거의 2m 깊이의 물에 잠기면서 30일 현재 74명이 숨지고 60여명이 실종됐으며, 4만5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남아시아에서는 몬순 폭우로 주말 동안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에서 최소 70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고립됐다고 현지 관리들이 29일 밝혔다.

인도 아삼 주 당국은 최근 며칠 간 쏟아진 폭우와 히말라야 산맥의 눈이 녹으면서 네팔과 인도 북부 지역 및 방글라데시의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관리들은 네팔에서만 이번 주말에 18명이 숨지는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 7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중화 중부 허난(河南)성 쑤먼시 시현의 지진(支展) 탄광에서는 29일 홍수로 인해 광도에 물이 차는 바람에 70명의 광부들이 매몰됐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후쿠시카지 who@·연합뉴스

검찰, 이명박·홍준표 공방 계속 수사

고소 취소 불구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실제 조사 불가피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국정원의 이 후보 개인정보 조회 의혹 수사는 모두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차장검사는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등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은 (고소) 취소돼 더 수사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혁규 의원 등 열린우

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한 사건, 김 의원 측의 맞고소, 지만원씨의 고발과 김진명씨의 진정 등 다수의 사건이 이 의혹들을 둘러싸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실제 관계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만원씨는 11일 김재정씨와 씨다스사장,

이해훈·유승민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 온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과 홍은프레싱 특혜 의혹, 도곡동 땅 의혹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속도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다만 관련자들의 협조 여하에 따라 수사 속도는 조금 유동적일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장검사는 27일 일본에서 귀국한 이 후보의 말형 이상은씨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정과 방법은 변호인과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8월 1일 갯전도 개강
특선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주목관리사
광주고시학원
문의: 227-8003, 229-8199, 921-0302

제1회 경찰청 공인지역 인종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실업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무탈고시회 알려면 합격은 쉬워집니다!
이러한 일은 꼭 준비하세요!
· 교통안전법 제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관련법령(경찰법, 도로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관한 법령
· 화법, 면접을 준비할 시간, 공부
· 도로에서 및 시험 보실때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분
합격보장강좌
합격반 3월 수료
주말반 6월 수료
과금유일 11월
무등 공개 강좌
과제하고 과제반 참여
합격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신 분
매출세 지원금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법
합격합격자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업 및 취업에 성공하십시오!
40년 전통의 '무등'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합격 전문 무등고시학원
문의: 434-7858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관심사항 조부 허리디스크
조제에한 제조는 저가만큼만큼 품질이저어 있습니다
HAY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838, 531-0700, 523-4600, 011-9612-5530